

할머니 굽은 허리모양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구례-15-9-1-6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3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구례	35° 12' 03.34" N 127° 27' 17.79" E
수령	260년	
수고	5m	
흉고둘레	2,5m	



마을의 정자나무(정자목)이면서 당산나무(당산목)의 보호수(구례-15-9-1-6) 느티나무는 구례향교 앞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26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5m, 가슴높이둘레는 250cm 정도이다. 예전에는 나무높이가 지금의 두 배 정도로 크게 자랐으나 어느 해에 벼락을 맞은 후 지금의 형태로 자라고 있다. 원줄기는 곧게 서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등이 약간 굽은 형태이다. 마치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보이는 등 쪽의 줄기는 총천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고, 앞부분은 넘어지지 않게 쇠기둥의 받침목을 대고 있다. 느티나무는 말라 죽은 위쪽 가지 줄기가 남아 있으며,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주변은 자연적으로 둥그렇게 두르고 있으며, 그곳에 작은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당산나무(당산목)와 관련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할머니 당산 또는 할머니 당산나무라 부른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 아들 당산의 3당산을 각각 모셨다. 할아버지 당산은 감나무이고 향교의 뒤쪽에 있으며, 아들 당산은 마을 옆으로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작은 흙무더기 위의 편편한 돌이다. 1990년 무렵부터는 할머니 당산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꺼번에 3당산 합동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당산제는 선달그믐날 자시 경에 지내며, 제관 혼자 조용히 모시고 축문을 읽지 않는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만이 참석하여 제를 올리는데, 당산제를 올리기 며칠 전부터 목욕재계를 하며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 금줄은 새끼로 둘둘 감고, 썩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가 봄에 전체적으로 일제히 싹을 틔우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고 있다. 또한 위쪽에서 먼저 싹이 나오면 풍년이 되고, 아래쪽에서 싹이 먼저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